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었다.

백두산의 억척의지로 곱쌓이는 만년층하를 단신으로 떠맡아 이기시며 우리 국가의 위대한 힘과 지위를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세우주시고 혁명발전의 일대 도약기를 열어나가는 우리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께서 몸소 무뎠는 생눈길을 헤치시며 혁명의 명맥이 높뛰고 무궁무진한 애국열원이 끓어솟는 백두의 혁명전적지를 찾아 뜻깊게 새기신 거룩한 자욱은 비상한 력사적의의를 안겨주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전지에 숨배어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발자취와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을 새기시며 청봉속영지, 건창속영지, 리명수구, 백두산밀영, 무두봉밀영, 간백산밀영, 대각봉밀영을 비롯한 삼지연군안의 혁명전적지, 사적지들과 답사속영소들, 무로속영지와 대흥단혁명전적지도 돌아보시면서 백두산전구 혁명전적지보존관리사업과 답사실태를 료해하시고 혁명전통교양의 력사적중요성과 그를 더 높은 수준에서 강화하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행한 지휘성원들과 함께 군마를 타시고 백두대지를 힘차게 달리시며 백두광야에 뜨거운 선혈을 뿌려 조선혁명사의 첫 페이지를 장엄히 아로새겨온 빨찌산의 피어린 력사를 뜨겁게 안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월이 흘러 강산도 변하고 세대가 바뀌었지만 백두산의 그 웅자는 변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언제나 와보아도, 걸으면 걸을수록 몸과 마음에 새로운 혁명열, 투쟁열이 흘러들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백두대지는 혁명전통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혁명의 재보들로 가득찬 대로천혁명박물관과 같다고 하시면서 백두대지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강국념원이 푸르심



명의 지휘성원들이 수령님과 장군님을 닮은 견실하고 유능한 정치활동가들로 자기 자신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무장하려면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를 통한 《백두산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에 뿌리내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한 불굴의 공격사상으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고 개척로를 열어제끼자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신께서 이번에 시간을 내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본것은 전당, 전군, 전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봉쇄압박책동속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로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사회주의부강조국건설에 총대진해나가고있는 우리 혁명의 현정세와 환경, 혁명의 간고성과 장기성에 따르는 필수적인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 백두의 굴함없는 혁명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세우기 위해서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혁명의 대백과전서이며 우리 민족의 만년채보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신데 이어 또 다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었다. 사나운 북방겨울의 눈보라를 길들이시며 백두전지에 지축을 흔드는 천리준마의 말발굽소리를 높이 울려 주체조선의 혁명적진군기상을 만천하에 보여주시는 강철의 령장,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를 또 다시 맞이한 성산은 한겨울의 추위를 물리고 따뜻한 봄기운을 내뿜으며 원수님을 반기었다.

본사기자

살아 생생히 깃들어있는것 같고 나라를 찾기 위해 피흘려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넋이 깃들어있는것 같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전적지답사속영소들이 훌륭히 신설, 개건보수되어 혁명전통교양의 도수를 더 높일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혁명전통교양을 지나간 력사적사실에 대한 추억으로가 아니라 대중에게 산 체험으로 간직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박력있게 내밀도록 하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더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혁명앞에 나서는 전략적과업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주력으로 등장하고 세계정치구도와 사회계급관계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있으며 우리 당의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허물어버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수들의 책동이 날로 더

욱 우심해지고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언제나 백두의 공격사상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백두의 혁명전통에 관통되어있는 위대한 사상과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혁명의 대를 이어놓는 중요하고도 사활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금 우리 혁명의 주력을 이루고있는 새 세대들을 사상정신적품모에 있어서나 투쟁기풍에 있어서 항일혁명선렬들의 높이에 이르게 하자는것이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는 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목표이고 방침이라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높이 들게 한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에 혁명전적지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느끼는바가 크다고, 우리 수령님처럼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혈전만리 생눈길을 헤치며 고생하신분은 없을것이

라고 감회깊이 말씀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적은 변하지 않는 백두의 웅자와 더불어 후세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늘의 이 강대한 사회주의조국을 꿈으로 소중한 그려보시며 험산준령을 강의한 의지로 헤쳐넘고 뚫고넘으셨을 그날의 수령님의 심중을 경건히 새겨안아보느라니 우리가 어떤 각오를 안고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야 하겠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를 이어서라도 끝까지 이 한길만을 가야 하겠는가 하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그래서 마음과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지만 힘이 용솟음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과 사적지들마다에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사상이 그대로 맥박치고있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굴함없는 혁명정신을 알자면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한 교양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특히 혁

명정세와 환경, 혁명의 간고성과 장기성에 따르는 필수적인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 백두의 굴함없는 혁명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세우기 위해서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혁명의 대백과전서이며 우리 민족의 만년채보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과 사적지들마다에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사상이 그대로 맥박치고있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굴함없는 혁명정신을 알자면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한 교양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특히 혁



위대한 당의 령도와 전인민적애국충정으로 천지개벽된 인민의 리상도시 삼지연군 읍지구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참석하시여 준공레프를 끊으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대건설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의 리상향으로 천지개벽된 삼지연군 읍지구 준공식이 12월 2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주체적건축미학 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삼지연군 읍지구는 교양구획과 살림집구획, 상업봉사구획을 비롯한 여러 구획으로 형성되어 민족성과 현대성, 북부고산지대의 특성이 훌륭히 결합되고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에서 모든 건축물들의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예술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사회주의문명의 축도이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영광의 땅 삼지연군 읍지구가 현대문명이 응축된 사회주의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전변됨으로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려는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고 당의 지방건설구상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혁명적도약대가 마련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백두대지를 뒤흔들며 끝없이 메아리쳤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였다.



이 향기그득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준공사를 하였다.

그는 삼지연군 읍지구에 펼쳐진 오늘의 전변은 삼지연군구리기를 받기하시고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불철주야로 헌신하여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와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위대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삼지연군 읍지구가 당의 령도라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만리마시대의 위대한 창조물로, 우리 민족제일주의건축리념과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산간

문화도시의 전형으로 솟아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일심단결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인민의 탁원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총매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준공레프를 끊으시였다.

하늘땅을 진감하는 우렁찬 《만세!》의 함성과 함께 축포가 터져오르고 고무공선들이 날아올라 로동당시대의 회한한 산간문화도시 삼지연군 읍지구의 하늘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이 삼지연군 읍지구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한 216사단 건설자들의 대렬행진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울리며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는 건설자들과 군중들에게 따듯이 손저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사회주의문명을 전면적으로 꽃피우시며 조국번영의 찬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울리고 또 울리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위대한 인민사랑의 창조물로 웅장하게 일떠선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조업식 성대히 진행

조선로동당의 인민중시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사랑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조업식이 12월 3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업식에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업식장에 나오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을 위한 대규모 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건설을 받기하시고 멀고 험한 건설장을 거둬 찾으면서서 흙먼지만 날리던 중평지구를 황금의 땅으로 전변시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울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업사를 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업레프를 끊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인건설자들과 군중들에게 따듯이 손저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 인민군지휘성원들과 함께 중평남새온실농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는 투쟁목표와 리상을 높이 세우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도들에서 남새온실농장들을 건설하고 서로 경쟁하며 과학농사정형판정을 관례화하는것을 비롯하여 온실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본사기자



통일의 길에 빛나는 위인의 명언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명언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는 조선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끝없이 부강번영할 수 있으며 분리의 고통을 가시고 후쿠백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통일에 국의지가 담겨져있는 고귀한 명언이다.

조선은 하나다. 분별은 우리 민족의 의사가 아니며 통일만이 우리 민족의 지향이고 념원이다.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하나의 민족, 한강토우에서 반만년의 오랜 역사적기간 하나의 피줄을 순결하게 이어온 단일민족이다. 그러던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별로 인하여 통일적발전의 길을 걸지 못하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들춰온 민족분렬의 비극은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있으며 그로 인한 손실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사람과 지역만을 갈라놓는것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의 통일적발전을 제약해왔다.

긴장완화와 평화화를 위한 애국애족적인 발기들

1980년대 중엽 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가시기 위한 여러가지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공화국은 1985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4차회의에서 《북과 남 사이에 민족적화해와 신뢰를 도모하며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북남국회회담을 열고 여기에서 불가침선언을 채택발표할데 대한 제안을 담은 남조선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공화국의 북남국회회담제안은 3차회담이 실현되기 전까지라도 나라의 평화문제를 가능한 한 북남 사이에 할수 있는데까지 자체로 풀어나가려는 진지한 립장으로 부터 출발한것이였다.

북남국회회담에서 불가침선언을 채택발표할데 대한 제안을 북남 각계층 인민들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의 광범한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여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를 조성하기 위한 애국애족적인 방안이였다. 이 제안은 북남대화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남측이 표시한 일련의 견해와 주장도 폭넓게 고려하였으며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의 념원도 정확히 반영한 공명정대한 제안이였다.

그러하여 1985년 7월 23일과 9월 25일에 두차례의 북남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이루어졌다. 남조선당국은 예비접촉에 나오기는 하였지만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선언의문제는 국회기능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쓰면서 이른바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기구를 내오는 문제를 토의하자고 고집하였다. 조선이 해방된지 40년이 되도록 통일되지 못하고있는것은 북과 남 사이에 불신과 오해, 긴장상태가 지속되고있기때문이지 그 무는 《통일헌법》이 없어서가 아니라있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회회담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의 토의를 반대하고 아무런 의의도 없는 《통일헌법》문제를 토의하자고 하는 남조선당국의 립장은 북남대화차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자는것의 다른것이 아니였다.

공화국은 대화의 전진을 위해 이미 내놓은 불가침선언발표에 관한 의제와 함께 남측이 주장하는 문제도 함께 토의하자는 신숙성있는 립장을 보이였지만 그들은 그것마저 거부하면서 회의의 전진을 방해하였다. 북남국회회담을 위한 두차례의 예비접촉의 전 과정은 남조선당국이 접촉과 대화에 응하기를 하되 대화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여 시간을 끌며 대화를 통하여 화해와 통일이 아니라 대결과 분렬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공화국은 매해 진행되는 《립스프리트》합동군사연습이 대화의 중단만을 가져온 전례들에 비추어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것을 제삼국구하면서 《국제평화의 해》인 1986년에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신숙성있는 조치들을 련이어 내놓고 그 시행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였다. 1986년 1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외교부성명을 통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월 1일부터 공화국북반부의 전 령역에서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하지 않으며 북남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모든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결정하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대행진(2015년)

준엄하고 가혹철폐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사람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량만을 안겨준 가요 《샘물터에서》부터 시작된 나의 할머니(작가 최로사)의 창작활동은 반세기 이상 계속되였다. 그 나날 할머니는 수백편이나 되는 시가를 창작하였다. 그중에는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아 널리 불리우고있는 가요들이 많다. 《그네뛰는 처녀》, 《내나라는 좋아라》, 《우리가 제일일세》, 《새별》, 《조국이 귀중함을 깨달은것은》, 《축배를 들자》, 《정다워라 나의 일터여》, 《우린 승리자》, 《아침도 좋아 저녁도 좋아》, 《조선의 행운》...

학한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책가방을 벗어던지고 뛰어나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뛰어놀던 일이 생각난다. 전후에 십여년간이나 중앙예술단체의 소개자로 있었던 할머니여서 그런지 나이가 어지간한데도 목청이 젊은 사람들 짙짙먹을 정도로 맑고 쉿쉿했다. 더우기 30층이나 되는 높은 곳에서 《에림아-》하고 나를 부를 때면 정말 요란했다. 《대고- 너 이제 범할머니한테 혼날것구나.》 함께 뛰놀던 아이들의 격정 어린 목소리였다. 《헛, 알지두 못하면서... 할머니가 날 얼마나 교와한대구.》 이렇게 대꾸했지만 사실 속은 조마조마했다. 내가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할머니는 《이녀석, 아저씨 정신을 못 차렸구나. 속세도 안하구 놀기만 하다니?》 하며 귀찮을 쳤다. 그러면 나는 슬금슬금 방구석에 처박힌 책가방을 끌고내 부랴부랴 속세를 하곤 했다. 내 키가 할머니만큼 컸을 때에두 할머니는 잘못을 저지르면 주저없이 매를 안기곤 했다. 할머니는 나에게 혈육의 정이나 사랑보다 먼저 애국의 넋을 심어준 스승과도 같은 분이였다. 내가 17살 잡히던 해에 있는 일이다. 당장 중학교졸업을 앞둔 나의 가슴은 고무풍선처럼 잔뜩 부풀어있었다. 《할머니, 난 중학교를 졸업하면 운전수가 되겠어요.》 《안된다. 네가 누구의 손자인지 있었니?》 그전에도 할머니는 나에게 늘 이답에 커서 꼭 예술인

수기 **광만과 열정의 삶을 준 고마운 조국 (2)** **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곤 했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운전수가 되겠다고 뻔뻔했다. 《할머니가 예술을 했다고 나도 예술인이 돼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다음순간 할머니의 눈가에 맑은 이슬이 그득히 고여올랐다. 《에림아, 내가 서울역에서 너희 증조할머니와 작별할 때 증조할머니는 북에 가 거들랑 절대로 문학예술계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된다고 거들거름 당부했단다. 그때 멀어져가는 나에게 소리쳐 당부하던 어머니모습이 종종 꿈에 보이곤 한다. 저 차치한 남녘땅에서 예술인들의 운명이란 한갓 노리개에 지나지 않았기때문이지. 나도 거기에 그냥 있었더라면 아마 꽃망울을 터쳐 보지도 못한채 꺾이우고 말았을거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시들어가던 꽃잎과도 같았던 내 인생에 생명수를 부어주고 삶의 희열을 느낄수 있게 해주었다. 그 요람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의 이 행복을 꿈엔들 생각할수 있었겠지? 난 죽을 때까지 내해같은 이 은혜에 다 보답하지 못할것 같구나!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이 손에 붓을 들곤 한다.》 언젠가 나는 할머니에게 위대한 장군님을 그토록 그리워하면서 왜 정작 그이를 만나보았을 때 함께 사진을 찍자고 청을 드리지 못했는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그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난 장군님을 만나뵈는것만으로도 영광이었고 행복이였다. 그의 사랑은 나의 인생길 갈피갈피에, 살고있는 이 집의 구석구석에 배어있단다. 난 그저 숨이 지는 순간까지 그이를 친어버리로 높이 모시고 사는 공화국의 밝은 모습을 세상에 자랑하고싶은 심정뿐이란다.》 할머니는 마름줄 모르는 생처럼 가슴속에 솟구쳐오르는 그 심정을 남녘의 옛 동창생들에게도 전했다. 그때 할머니가 보였던 편지 《장군님을 알면 레일이 보입니다》를 여기에 소개한다. 《숙명녀고의 동창생 학생우들! 해외에서 학우들이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 이제는 꼭 50년전, 비내리는 서울역 두에서 눈물속에 헤어졌던 문하소서(종달새), 이 최로사를 잊지 않고 편지들을 보내주어 고맙습니다. 학우들은 편지에서 김정일장군님을 만나뵈은 이(종달새)를 축복하면서 장군님에 대해 알려달라고 부탁했지요. 그게서서 저를 몇해여 간에 다섯번이나 만나주셨답니다. 오늘은 장군님앞에서 제가(울보)가 되었던 이야기만을(통일신보)의 지면을 빌려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해 만나본바이지만 우리 동창생들 가운데는 동서방 대통령들의 판저를 드나들며 그들과 가

까지 지낸다는 저명한 문필가도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들과 친한다면 그것은 직업상의 무감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김정일장군님께 그토록 이끌리게 된것은 그이께서 민족의 령도자이시기에 앞서 다정다감한 인간이시라는 매혹에 있습니다. 그의 미소는 봄날의 햇빛처럼 따스하며 그의 안광은 예지리 별빛처럼 빛났습니. 그의 음성은 정서깊은 음악의 선율이 되어 이 마음의 금슬을 뛰기며 추억의 나래도 퍼주고 미래에 대한 략관의 샘이 솟구치게도 합니다. 여러해전 어느 가을날, 장군님께서 저를 만나주시 자리에서 좋은 가사들을 쓰느라고 수고가 많았다고 하시며 몸소 축배잔을 찜어주시였습니다. 저는 장군님의 은정이 너무도 고마워 인사의 말씀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감격의 눈물만 흘렸습니. 그이께서는 저를 보고 울브라고 하시며 어서 잔을 들이야 함께 잔을 들것어 아닌가, 동무가(축배를 들자)는 노래도 지었는데 어서 들자고 하시였습니다. 친혈육과 같은 장군님의 후더운 인정이 저를 울보가 되게 한것입니다. 1995년 5월의 봄날에도 장군님께서서는 여러 시간이나 저를 만나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행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1956년에 제가 가사를 쓴 민요

《그네뛰는 처녀》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그때 동무는 민족적색채가 짙은 광만적인 노래로 인민들을 고무하여 지냈습니. 장군님의 품에 안기던 나날을 회상하며 그때 자기가 넘어선 길은 한강토에 잇닿아있는 밀지 않은 몇십리 길이었어도 그 길을 사이두고 내 운명은 상상할수 없었던 큰 행복으로 영연해졌다고 말하곤 했었다. 남녘에 계시는 어머니를 그리며 그토록 통일을 바라고바라던 할머니는 지금 내 곁에 없다. 할머니는 눈을 감기 전에 나의 손을 꼭 잡았었다. 비록 할머니의 말도 남기지 못했지만 나는 할머니의 두부를 타고내리는 눈물에서 할머니의 심정을 다 읽을수 있었다. 아마도 할머니는 이런 말을 하고싶었을것이다. 《에림아, 장군님만 믿고 살아라. 그러면 통일의 날이 꼭 온다. 그때 내 고향에 나를 꼭 데려가도...》 나는 할머니의 유언을 아직 지키지 못하였다. 내외의 반동일세력들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며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겨레에겐 조선민족이 대대로 누리는 행운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과 유언을 받드시어 조국통일성업을 이룩어나가는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다. 머지않아 이 땅 삼천리에 통일만세의 환호성 높이 울릴 때 나의 할머니의 소원을 꼭 풀어드리리라.

나를 꼭 데려가도...》 나는 할머니의 유언을 아직 지키지 못하였다. 내외의 반동일세력들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며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겨레에겐 조선민족이 대대로 누리는 행운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과 유언을 받드시어 조국통일성업을 이룩어나가는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다. 머지않아 이 땅 삼천리에 통일만세의 환호성 높이 울릴 때 나의 할머니의 소원을 꼭 풀어드리리라.

김예림 (최로사의 외손자) 글



최로사 선생

김예림 (최로사의 외손자) 글

특 특 한 맛 과 향 기, 민 족 전 통 을 살 려

얼마전 평양역전백화점에 서 진행된 제9차 전국 술 및 기초식품전시회는 참관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기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각지의 식료품생산단위들에서 생산한 1만 6 000여점의 술 및 기초식품들이 전시되었다. 술제품들 가운데서도 창성식료공장에서 내놓은 돌배술, 라시어의 백화술, 대령공장의 대령술을 비롯한 많은 제품들이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대동강과일종합가공장



겨울철에는 피부가 줄어들고 탄피와 피부가 좋아져 피순환과 물질대사기능에 장애를 준다. 호흡기계통과 심장혈관계통 등 여러 계통의 기능도 낮아진다. 추위에 단련되지 못한 사람들은 상기도감염이나 폐렴을 비롯한 호흡기질환에 쉽게 걸린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소화기계통, 비뇨기계통의 기능도 낮아져 위병, 방광염, 콩팥염 등 여러가지 질병이 생기기 쉽고 그전에 앓던 병이 도질수 있다. 겨울철에는 체온을 유지하

기하고 기호와 구미에 맞게 구입하는 전시회는 련일 가정주부들로 호응성이었다. 민경대구역 갈림길 1동에서 산다는 조옥희녀성은 《기초식품전시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와보았는데 출품된 기초식품의 가지수가 이렇게 많은줄을 몰랐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다. 왔던김에 영양가가 높고 입맛을 돋구는 기초식품들을 많이 사가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옛날부터 《장맛이 단 집에 복이 많다.》는 말도 전해지는데 장은 우리 겨레의 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삭주군식료공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생산방법에 선진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원장의 질을 훨씬 높여 참관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공장에서 만든 된장 그리고 조화로운 맛과 향기로 음식의 맛을 돋구는 간장, 감칠맛, 매운맛을 내는 고추장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더 많이 만들어 인민들의 사랑받는 공장으로서의 영예를 더욱 빛내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그런가 하면 통풍식료공장에서 생산한 검은 쌀과 생강, 사과로 만든 발효초음료와 장훈식료가공사업소의 배발효초음료, 들쪽 발효초음료 등 여러가지 초음료제품들도 수요가 높았다. 초음료는 피로를 빨리 가시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풀어주며 잠이 잘 오게 한다. 초음료생산에 리용되는 발효초에는 조산과 함께 젖산, 호박산을 비롯한 유기산과 아미노산, 비타민 등이 포함되어있어 기능성 천연건강음료로 건강에 유익하다. 참으로 이번 전시회는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고 다양하게 하는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김진혁



리 용 가 치 가 큰 단 나 무 열 매

다나무열매에는 당과 유기산이 알맞추려 들어있고 여러가지 비타민과 미량원소, 생리활성물질들이 풍부히 포함되어있어 세계적인 천연건강식품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 리용범위가 날로 늘어나고있다. 특히 열매에는 비타민P 함량이 꺾꽂이보다 10배나 많아 심장혈관질환 치료에 효과가 매우 크며 고혈압, 동맥경화증, 뇌혈전, 뇌진탕, 심근경색 등의 예

방 및 치료에도 쓰인다. 다나무열매를 원료로 하여 약술, 단물, 차, 주사약을 비롯한 건강식품과 약품을 만들수 있다. 최근년간 공

패물, 지방질, 각종 유독성물질들을 몸밖으로 내보내고 피를 깨끗하게 하여 질병을 제거한다. 그리고 모세혈관을 확장시 켜뿐아니라 피졸벽의 유연성을 높여 뇌질환예방과 치료에도 좋다. 단나무는 가을에 붉게 단풍드는 일과 열매가 보기 좋아 공원, 집트락 등에 관상용으로도 많이 심는다. 본사기자

기 위한 영양물질의 분해과정이 다른 계절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므로 기름기가 많은 음식물을 충분히 섭취하는것이 중요하며 음식을 더 잘 씹어먹는것이 좋다. 겨울철에 호흡기질환을 예방하자면 방안의 습도를 약간 높이는것이 좋으며 더운 음료를 자주 마시는것이 좋다. 음료에서 나오는 더운 김은 입안점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호흡기계통이 건조

해지는것을 방지하며 병균 번식을 줄여준다. 겨울철에는 총차, 록차 등을 마시는것이 좋는데 음료가 뜨거울 때는 교부에서 주먹 하나 떨어진 위치에 코를 대고 더운 김을 들이마시다가 조금 식는 다음에 마시는것이 좋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록차에는 돌핀감기비루스를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한다. 겨울철에 밖에 나갈 때는 모내책을 잘 세우며 바람이 세게 불거나 몹시 추운 날에는 마스크를 끼는것이 좋다. 본사기자

혈 정 치 료 에 좋 은 식 품 들

혈정치료에서는 약을 사용하는것 외에도 식사요법을 병행해야 한다. 혈전의 《천적》으로 불리우는 식품들은 다음과 같다. 1. 양파 양파에 들어있는 프로스타글란딘A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가 걸죽해지는것을 방지하며 혈압을 낮춘다. 또한 피속의 콜레스테롤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를 억제한다. 2. 가지 가지에 비교적 많이 들어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즐겨 해온 겨울철민속놀이에는 윷놀이, 바둑당기기, 연타기, 바람개비놀이들도 있어 겨울철 분위기를 더욱 이채롭게 해주고있다. > 윷놀이 겨울철 대중적인 민속놀이인 윷놀이는 4개의 윷가락을 던져 얻어지거나 져지지는 결과를 가지고 말판에 말을 쓰면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다. 윷놀이는 세나라시거 이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즐겨 놀아온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하나이다. 우리 겨레는 설날이 가까와오면 윷놀이를 하기 시작하여 윷놀이 열대보름경까지 많이 놀았다. 우리 겨레의 기호에 맞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수 있는 대중적인 윷놀이는 던지는 기교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 가게 하기 위하여 말판을 잘 살피고 머리를 써야 하는만큼 사고력을 발전

사 화

사 록 신 유 응 부 (1)

조선봉건왕조 제6대 왕 단종은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왕이었다. 그런데 즉위한지 2년만에 삼촌인 수양대군에 의하여 왕위를 찬탈당하였다. 수양대군은 왕위 찬탈을 앞두고 조정의 원로종신들을 우선 제거하였는데 좌의정 김충서도 그중의 한사람이었다. 김충서의 비명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프게 생각한 사람은 무관 유응부였다. 유응부의 입에서는 《유...》 하는 긴 한숨소리가 뱉을줄 몰랐다. (임금의 자리가 무엇이기에 이따지도 심하게 군단 말이나 무모한 일이로구나!) 유응부는 특책장신의 큰 몸집을 하급직에 임명되어 돌안을 하급직에 거느리고있었다. 또 한일, 푸르디푸른 락엽이 그의 어깨를 툭 건드리고 땅바닥에 맥없이 떨어졌다. 《아, 락락장송갈던 절재(김충서의 호)가 수양대군의 첩위아래 이슬처럼 사라지다니...》 유응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존경하는 선배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조상하는 유응부의 가슴은 그 비통함보다 더 암담한 검은구름으

와 같이 감성적인 정서를 나타낸다. 멧은 맛이 가지고있는 감각적개념을 내포하고있으면서도 삶의 기쁨, 슬픔과 같은 인간의 내면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정서를 표현한다고 볼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할 때 멧있는 건물, 멧있는 남자, 멧있는 여자라고 한다. 이것은 건물의 외형과 쓸모, 사람의 행동과 성격, 옷매무시 등 내용과 형식을 다같이 포함하는 말이다. 본사기자

비 격 진 천

세로부터 남달리 예 국적이 강한 우리 겨레는 외래침략자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조국강토를 굳건히 지켜냈으며 그 과정에 우수한 무기기술을 창조하여 발전시켜왔다. 그가운데는 임진조국전쟁기간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한 세계최초의 시한포탄인 비격진천뢰도 있다. 비격진천뢰는 당시 재능있는 화학무기기술자였던 리장순에 의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발사되던 불길의 세차게 일어서 폭발할 때 나는 소리가 마치 우뢰와 같아 포탄의 이름을 비격진천뢰라고 하였다. 비격진천뢰는 완구포로 발사되던 시한포탄으로서 그 크기에 따라 대, 중, 소로 구분한다. 겉으로 보면 공모양을 이루는 비격진천뢰는 무쇠로 주조되었다. 두개의 불실지우멍이 있는 둥근 란체내부에는

있는 비타민P는 모세혈관의 탄성을 높여주고 분류성동맥경화증을 치료하는데서 좋은 역할을 한다. 3. 치밀 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인체의 항산화능력을 높여 줄뿐아니라 피속의 콜레스테롤수치를 낮추고 분류성동맥경화증을 예방한다. 4. 마늘 마늘에 들어있는 카르사이신은 축적된 지방을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 본사기자

이 러 서 무 상 하 리 오

피없이 쓰러진 사람들에게 대한 끝없는 동정과 어린 임금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긴 시조였다. 뜻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우려가 조정의 종신들과 량반유학자들의 사랑방에서 갖 칸신과 한숨이 되며 떠돌고있는 사이에 어느덧 드세한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 당나라였다. 손님들을 맞으려고 문밖으로 나서던 김충서는 흥윤성이 내려치는 첩위에 맞아 흰 수염을 피로 적시며 마당가에 꺼꾸러졌다. 뒤이어 령의정 황보인과 수양대군의 동생인 안평대군도 단종의 죽음을 당하고말았다. 피어린 왕자리다름으로 나라는 어디로 굴러떨어질지 알수 없었고 어린 단종은 어



길 가 에 집 짓 기

《길가에 집짓기》는 제 주견이 없이 남의 말대로 하다가는 일을 그르침을 이르는 말이다. 옛날 어떤 사람이 장사에 제미가 붙어 길가에다 집을 지으려고 길을 잡았다. 남향으로 길을 마주해 앉더니 오가는 사람들이 보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길을 마주해서야 뻥히 들어다보이고 소란해서 어떻게 살겠소?》 그 말이 그럴듯하여 옆으로 돌려앉혔더니 《옆으로 앉았을수록 서향이라 지는 햇을 안고야 복이 든다우?》 하고 말

공 정 한 판 결

옛날 한집에서 살던 형제 가 분가를 하는데 술 두개가 크고작아 서로 큰것을 가지겠다고 성의를걸을 하다가 좌상로인에게 소송하러 왔다. 그들의 소송을 들은 좌상로인은 옆에 있던 손자에게 이렇게 분부하였다. 《야, 그 술 두개를 가져다 깨뜨려서 중량을 달아 똑같이 나누어주거라.》